

제2절 정시운항 및 지연·결항 현황

1. 국내선

가. 정시운항¹⁾ 현황

- ❖ 2017년 3분기 국내선 정시율²⁾은 약 87.21%로 전년대비 약 7.67%p 개선되었음.
- ❖ 2017년 3분기 정시율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진에어로 약 84.94%의 정시율을 보이며, 해당 항공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2.29%p 증가하여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정시율을 보임.
- ❖ 다음으로 정시율이 낮은 항공사는 티웨이항공으로 약 85.45%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15%p 증가로 가장 낮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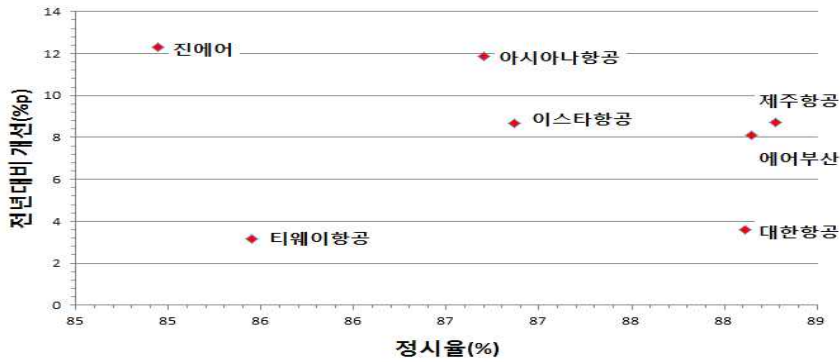
〈표 2-5〉 국내선 정시운항 추이

단위 : 편, %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대한항공	27,500	25,626	93.19	28,126	23,769	84.51	28,144	24,797	88.11
아시아나항공	17,982	15,785	87.78	17,298	12,942	74.82	18,624	16,147	86.70
에어부산	11,290	10,063	89.13	11,924	9,546	80.06	12,468	10,990	88.15
에어서울	-	-	-	1,278	952	74.49	-	-	-
이스타항공	6,916	6,172	89.24	8,304	6,492	78.18	8,928	7,756	86.87
제주항공	12,250	10,765	87.88	13,256	10,546	79.56	12,734	11,242	88.28
진에어	9,022	7,758	85.99	9,956	7,233	72.65	10,168	8,637	84.94
티웨이항공	7,890	7,152	90.65	8,022	6,602	82.30	8,376	7,157	85.45
합계	92,850	83,321	89.74	98,164	78,082	79.54	99,442	86,726	87.21

주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1) 정시운항(정상운항)이란 지연운항(운항계획 대비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초과 지연된 운항)과 결항을 제외한 운항을 말함.
- 2) 정시율이란 운항계획 대비 정상운항의 비율을 말함.



〈그림 2-8〉 국내선 정시율 개선 현황

나. 지연 현황

- ❖ 2017년 3분기 국내선 지연은 총 12,336건으로 전체 운항횟수의 약 12.45%를 차지함.
 - ▶ 2017년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진에어로 약 14.92%이며, 지연율이 낮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약 11.17%를 보임.
- ❖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지연이 총 11,292건으로 약 91.5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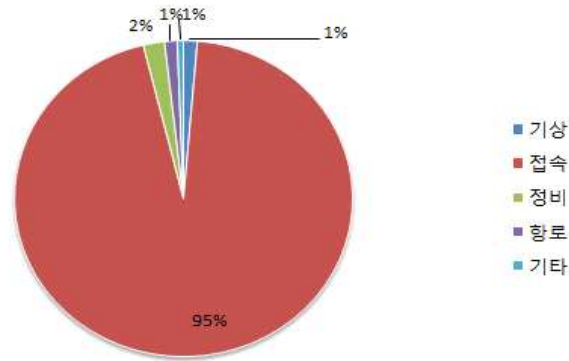
〈표 2-6〉 국내선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 횟수 ³⁾	지연 횟수	지연율	지연사유				
				기상	접속	정비	항로	기타
대한항공	27,914	3,117	11.17	72	2,650	93	63	239
아시아나항공	18,550	2,403	12.95	32	2,205	45	36	85
에어부산	12,450	1,460	11.73	10	1,364	30	15	41
이스타항공	8,894	1,138	12.80	14	1,062	17	6	39
제주항공	12,730	1,488	11.69	15	1,373	28	19	53
진에어	10,152	1,515	14.92	12	1,464	9	1	29
티웨이항공	8,372	1,215	14.51	1	1,174	18	5	17
합계	99,062	12,336	12.45	156	11,292	240	145	503

주1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지연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기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3) 운항횟수란 운항계획에서 결항을 제외한 운항을 말함.



<그림 2-9> 국내선 지연사유

- ❖ 최근 3년간 국내선 지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는 약 9.34%였으며, 2016년 3분기 약 19.90%로 전년대비 약 10.57%p 증가하였으나, 2017년 3분기에는 약 12.45%로 전년대비 약 7.45%p 감소함.
 - ▶ 2017년 3분기 기준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좋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약 11.17%로 나타남.
 - ▶ 2017년 3분기 기준 전년 동분기보다 지연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항공사는 진에어로 전년대비 약 12.10%p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지연율은 약 14.92%로 국내선에서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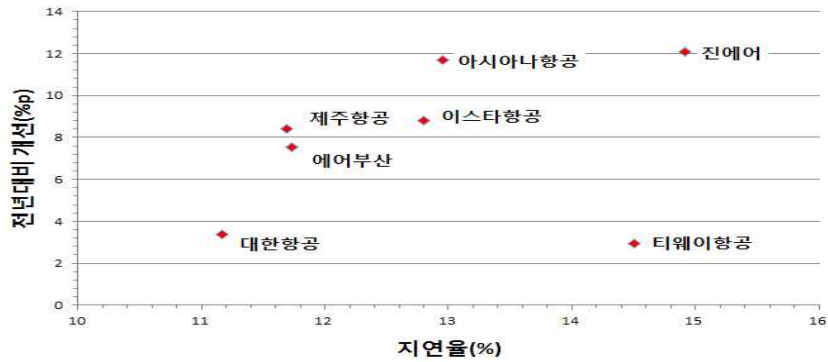
<표 2-7> 국내선 지연율 추이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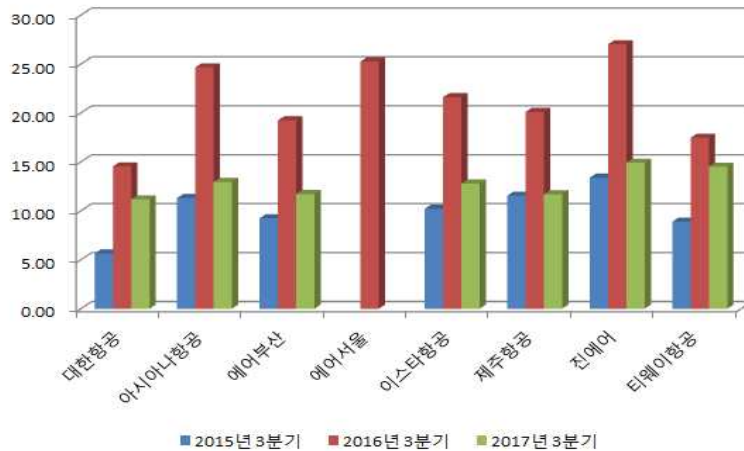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⁴⁾	'16년 대비
대한항공	5.65	14.55	11.17	5.52	-3.38
아시아나항공	11.32	24.67	12.95	1.63	-11.72
에어부산	9.24	19.25	11.73	2.49	-7.52
에어서울	-	25.27	-	-	-
이스타항공	10.21	21.61	12.80	2.59	-8.81
제주항공	11.54	20.11	11.69	0.15	-8.42
진에어	13.40	27.03	14.92	1.52	-12.11
티웨이항공	8.89	17.48	14.51	5.62	-2.97
합계	9.34	19.90	12.45	3.11	-7.45

주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4) 2017년 3분기 지연율과 2015년 3분기 지연율 차이를 말함.



〈그림 2-10〉 국내선 지연율 개선 현황



〈그림 2-11〉 국내선 지연율 추이

다. 결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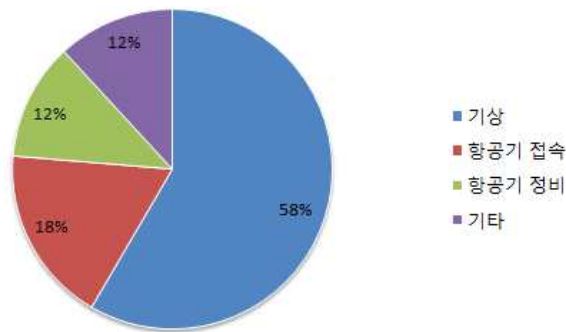
- ❖ 2017년 3분기 국내선 결항은 총 380건으로 전체 운항계획의 약 0.38%를 차지함.
 - ▶ 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약 0.82%였으며, 해당 항공사는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가장 높은 결항률을 보임.
 - ▶ 결항률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약 0.03%의 결항률을 기록한 제주항공임.
- ❖ 국내선의 경우,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 총 2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전체 결항 중 약 58.42%에 달하며, 다음으로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결항이 약 17.8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8> 국내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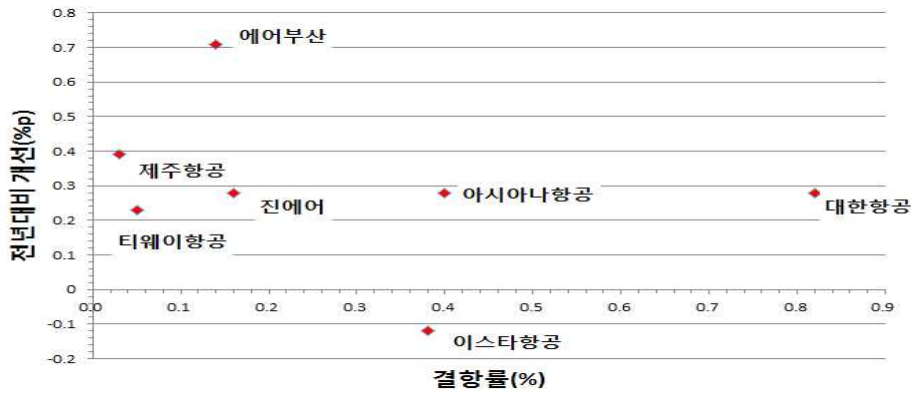
구분	운항 계획	결항 횟수	결항률	결항사유			
				기상	접속	정비	기타
대한항공	28,144	230	0.82	196	14	10	10
아시아나항공	18,624	74	0.40	16	25	21	12
에어부산	12,468	18	0.14	4	8	2	4
이스타항공	8,928	34	0.38	2	17	6	9
제주항공	12,734	4	0.03	0	0	0	4
진에어	10,168	16	0.16	4	2	6	4
티웨이항공	8,376	4	0.05	0	2	0	2
합계	99,442	380	0.38	222	68	45	45

주1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결항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지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12> 국내선 결항사유

- ❖ 최근 3년간 국내선 결항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는 약 1.02%였으며, 2016년 3분기 약 0.69%로 전년대비 약 0.33%p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3분기에는 약 0.38%로 전년대비 약 0.31%p 감소함.
- ▶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항공사들은 2년 연속 결항률이 감소함.
- ▶ 2017년 3분기 결항률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약 0.03%로 나타남.
- ▶ 전년대비 결항률 감소폭이 가장 큰 항공사는 약 0.71%p 감소한 에어부산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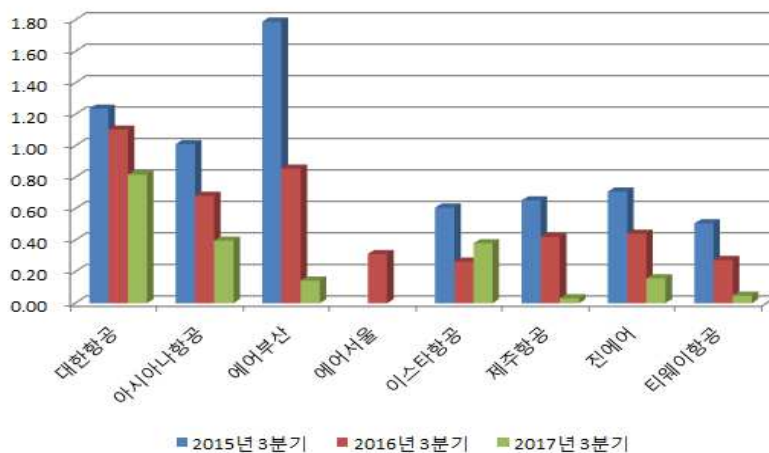
〈그림 2-13〉 국내선 결항률 개선 현황

〈표 2-9〉 국내선 결항률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대한항공	1.24	1.10	0.82	-0.42	-0.28
아시아나항공	1.01	0.68	0.40	-0.61	-0.28
에어부산	1.79	0.86	0.14	-1.65	-0.72
에어서울	-	0.31	-	-	-
이스타항공	0.61	0.26	0.38	-0.23	0.12
제주항공	0.65	0.42	0.03	-0.62	-0.39
진에어	0.71	0.44	0.16	-0.55	-0.28
티웨이항공	0.51	0.27	0.05	-0.46	-0.22
합계	1.02	0.69	0.38	-0.64	-0.31

주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14〉 국내선 결항률 추이

2. 국제선

가. 정시운항 현황

- ❖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3분기 정시율은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국적항공사의 정시율이 외국적항공사의 정시율보다 높게 나타남.
 - ▶ 아시아나항공의 정시율은 약 89.86%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94%p 감소하며, 2017년 3분기에는 국적항공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 국적항공사 중 2017년 3분기 정시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약 98.72%로 나타났으며, 2016년 10월부터 국제선 취항을 시작한 에어서울은 정시율 약 96.95%로 나타나 국적항공사 중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 ❖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인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으로 약 3.05%p 개선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약 2.94%p 낮아졌음.
- ❖ 국적항공사는 2016년 3분기 정시율이 약 94.03%에서 2017년 3분기 약 93.33%로 약 0.7%p 감소하였으며, 외국적항공사는 2016년 3분기 정시율이 약 91.82%에서 2017년 3분기 약 91.21%로 약 0.61%p 감소함.



〈그림 2-15〉 국제선 정시율 개선 현황

〈표 2-10〉 국제선 정시운항 추이

단위 : 편, %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운항 계획	정상 운항	정시율
대한항공	22,205	21,631	97.41	24,629	23,404	95.03	24,229	22,658	93.52
아시아나항공	16,605	15,766	94.95	17,742	16,465	92.80	16,927	15,210	89.86
에어부산	2,631	2,553	97.04	3,617	3,520	97.32	4,916	4,853	98.72
에어서울	-	-	-	-	-	-	1,344	1,303	96.95
이스타항공	1,881	1,806	96.01	3,116	2,777	89.12	4,035	3,719	92.17
제주항공	4,741	4,571	96.41	6,372	6,002	94.19	7,888	7,476	94.78
진에어	2,461	2,423	98.46	5,584	5,317	95.22	6,154	5,847	95.01
티웨이항공	1,673	1,632	97.55	3,103	2,849	91.81	5,253	4,960	94.42
국적항공사 합계	52,197	50,382	96.52	64,163	60,334	94.03	70,746	66,026	93.33
외국적항공사	28,990	26,717	92.16	38,330	35,194	91.82	33,915	30,935	91.21
합계	81,187	77,099	94.96	102,493	95,528	93.20	104,661	96,961	92.6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나. 지연 현황

1) 국적항공사 지연 현황



〈그림 2-16〉 국제선 국적항공사 지연율 개선 현황

- ❖ 2017년 3분기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지연은 총 4,603건으로 실제 운항횟수의 약 6.52%를 차지하고 있음.
 - ▶ 지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약 9.99%이며, 가장 낮은 지연율을 보인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약 1.08%임.
- ❖ 2017년 3분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2,213건을 기록한 항공기 접촉으로 전체 지연사유 중 약 48.08%에 달함.
 - ▶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1,362건으로 전체 지연사유 중 약 29.59%를 차지하였으며, 대한항공은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 비율이 약 41.48%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기상으로 인한 지연은 244건으로 전체 지연사유 중 약 5.30%를 차지하였으며, 에어서울의 경우 기상으로 인한 지연이 6건으로 전체 지연 중 약 15.38%를 차지하여, 다른 국적항공사들이 10%미만으로 나오는 것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1>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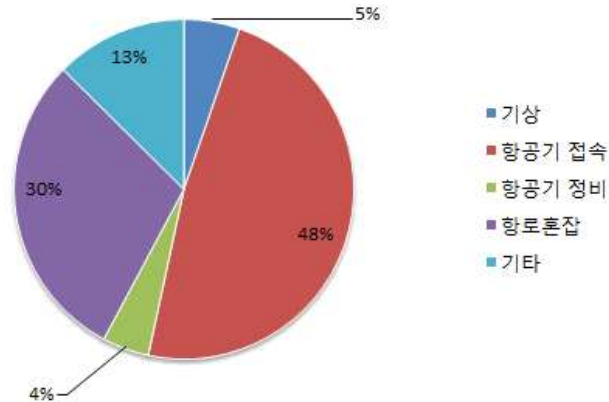
단위 : 편, %

구분	운항 횟수	지연 횟수	지연율	지연사유				
				기상	접속	정비	항로	기타
대한항공	24,196	1,538	6.36	58	484	83	638	275
아시아나항공	16,898	1,688	9.99	97	942	52	396	201
에어부산	4,906	53	1.08	4	28	7	11	3
에어서울	1,342	39	2.91	6	22	7	3	1
이스타항공	4,019	300	7.46	11	210	9	58	12
제주항공	7,872	396	5.03	24	183	15	138	36
진에어	6,146	299	4.86	29	143	18	71	38
티웨이항공	5,250	290	5.52	15	201	14	47	13
합계	70,629	4,603	6.52	244	2,213	205	1,362	579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지연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기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17〉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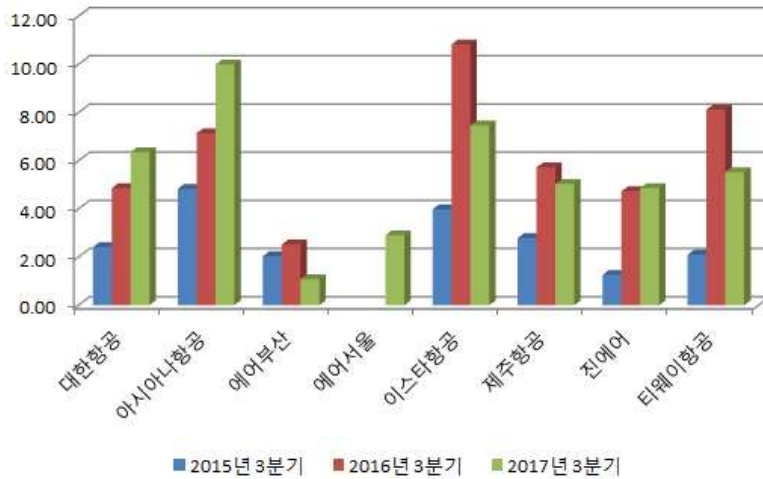
- ❖ 최근 3년간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는 약 3.19%였으며, 2016년 3분기 약 5.88%, 2017년 3분기 약 6.52%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한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의 국제선 지연율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율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대한항공	2.41	4.86	6.36	3.95	1.50
아시아나항공	4.83	7.14	9.99	5.16	2.85
에어부산	2.03	2.52	1.08	-0.95	-1.44
에어서울	-	-	2.91	-	-
이스타항공	3.99	10.82	7.46	3.47	-3.36
제주항공	2.79	5.72	5.03	2.24	-0.69
진에어	1.26	4.73	4.86	3.60	0.13
티웨이항공	2.10	8.13	5.52	3.42	-2.61
합계	3.19	5.88	6.52	3.33	0.6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18>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율 추이

2) 외국적항공사 지연 현황

❖ 2017년 3분기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8.41% 수준임.



<그림 2-19> 노선별 국제선 지연율 개선 현황

<표 2-13> 노선별 국제선 지연율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일본노선	1.27	2.95	2.67	1.40	-0.28
	미주노선	3.36	8.03	8.07	4.71	0.04
	아시아노선	3.53	8.08	8.08	4.55	0.00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중국노선	4.69	6.55	8.14	3.45	1.59
	유럽노선	4.67	7.29	17.24	12.57	9.95
	대양주노선	2.87	3.17	3.42	0.55	0.25
	기타노선	4.29	9.55	21.76	17.47	12.21
외국적 항공사	일본노선	1.68	3.61	2.46	0.78	-1.15
	미주노선	5.27	7.53	5.55	0.28	-1.98
	아시아노선	6.88	7.41	7.94	1.06	0.53
	중국노선	10.22	9.67	11.6	1.38	1.93
	유럽노선	4.72	4.48	7.51	2.79	3.03
	대양주노선	2.59	3.03	2.27	-0.32	-0.76
	기타노선	1.27	2.17	1.16	-0.11	-1.01
합계	4.69	6.62	7.13	2.44	0.51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 노선별 지연율은 기타노선(중동노선)의 국적항공사 지연율이 약 21.7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적항공사 유럽노선 지연율이 약 17.24%, 외국적항공사의 중국노선 지연율이 약 11.60%로 나타남.
 - ▶ 국적항공사 기타노선(중동노선)의 경우 운항 경로 상의 항로혼잡과 해당기간 중 악기상의 영향으로 지연율이 높게 나타남.
 - ▶ 국적항공사들의 유럽노선과 기타노선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지연율이 각각 약 9.95%p, 약 12.20%p로, 지연율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국적항공사로, 이들의 지연율은 각각 약 14.09%, 약 7.26%로 나타남.
 - ▶ 중국동방항공의 경우 외국적항공사의 평균지연율보다 높는데, 이는 중국 내 항공교통량이 증가에 따른 항로혼잡이 약 20.6%로 높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 일본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피치로 지연율 약 4.95%이며, 미주노선에 경우는 델타항공으로 약 4.60%로 나타남.
 - ▶ 아시아 노선에서는 가장 운항횟수가 많은 항공사는 베트남항공으로 지연율 약 3.81%이며, 중국노선은 중국동방항공이 약 14.09%, 유럽노선은 사할린스

키항공으로 지연율 0.85%, 대양주는 단일 외국적항공사로 하와이안에어가 2.27%의 지연율을 보이며, 기타노선(중동지역)은 카타르항공으로 1.90%의 지연율을 보임

❖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은 <표 2-14>와 같음.

<표 2-14> 외국적항공사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 횟수	지연 횟수	지연율	지연사유					
				기상	접속	정비	항로	기타	
일본	에어피치	1,274	63	4.95	5	49	4	3	2
	일본항공	1,103	7	0.63	0	5	0	1	1
	전일본항공	550	2	0.36	0	1	1	0	0
미주	델타항공	544	25	4.60	0	12	12	0	1
	싱가폴항공	184	2	1.09	0	0	0	2	0
	아메리칸항공	182	3	1.65	0	1	2	0	0
	아에로멕시코	101	5	4.95	2	0	0	1	2
	에어캐나다	367	45	12.26	0	37	2	3	3
	유나이티드	368	17	4.62	0	8	7	0	2
	캐세이퍼시픽	1	0	0.00	0	0	0	0	0
	드레곤에어	288	10	3.47	0	6	2	1	1
	라오항공	212	5	2.36	2	0	0	3	0
아시아	로얄 브루나이 항공	16	0	0.00	0	0	0	0	0
	만달린항공	54	2	3.70	0	1	0	0	1
	말레이시아	184	21	11.41	1	14	5	1	0
	몽골	220	41	18.64	4	4	0	29	4
	베트남	1,260	48	3.81	7	17	1	18	5
	비엠헤항공	894	128	14.32	8	99	3	12	6
	세부퍼시픽	624	50	8.01	2	31	3	13	1
	스카이웍스아시아	16	6	37.50	0	6	0	0	0
	스쿠트항공	20	-	0.00	0	0	0	0	0
	싱가폴항공	736	9	1.22	0	5	1	2	1
	에바	805	16	1.99	2	6	1	7	0
	에어마카오항공	334	31	9.28	5	23	0	2	1
	에어아시아 익스	472	106	22.46	1	88	0	13	4
	에어아시아필리핀	841	111	13.20	4	86	8	6	7
	에어필리핀	184	5	2.72	0	3	0	0	2
	유니항공	78	1	1.28	0	0	1	0	0
	인도네시아	342	15	4.39	2	7	1	2	3
	인도항공	95	12	12.63	2	8	0	1	1
	중화항공	988	49	4.96	4	33	2	8	2
	캐세이퍼시픽	1,041	132	12.68	10	91	3	14	14
타이거에어	304	4	1.32	1	3	0	0	0	
타이거항공	58	4	6.90	1	1	1	1	0	
타이에어아시아엑스	368	9	2.45	0	2	0	7	0	
태국항공	865	85	9.83	5	38	4	34	4	

구분	운항 횟수	지연 횟수	지연율	지연사유					
				기상	접속	정비	항로	기타	
중국	페시픽항공	12	1	8.33	0	1	0	0	0
	필리핀항공	1,251	68	5.44	3	46	2	9	8
	홍콩익스프레스	1,054	107	10.15	10	81	1	8	7
	홍콩중부항공	206	22	10.68	1	18	2	1	0
	사천항공	78	15	19.23	5	10	0	0	0
	산둥항공	1,346	175	13.00	29	117	0	17	12
	심천항공	210	59	28.10	7	35	0	14	3
	중국국제항공	1,489	121	8.13	19	54	0	44	4
	중국남방항공	3,236	235	7.26	27	176	7	19	6
	중국동방항공	3,549	500	14.09	23	340	5	103	29
	중국상하이항공	593	90	15.18	10	56	1	21	2
	중국천진항공	184	18	9.78	1	9	0	6	2
	중국춘추항공	689	98	14.22	5	69	0	15	9
	중국하문항공	108	21	19.44	1	15	0	3	2
유럽	네덜란드	166	2	1.20	0	2	0	0	0
	롯항공	130	12	9.23	0	6	1	4	1
	루프트한자항공	341	42	12.32	0	3	0	37	2
	사할린스키항공	708	6	0.85	2	1	2	0	1
	시베리아항공	288	18	6.25	0	15	0	3	0
	아스타나항공	132	18	13.64	0	7	1	8	2
	아에로폴로트항공	184	33	17.93	1	10	0	17	5
	알리탈리아	78	19	24.36	1	1	0	13	4
	야쿠티아항공	2	-	0.00	0	0	0	0	0
	영국항공	184	10	5.43	0	2	3	5	0
	우즈베키스탄	88	5	5.68	0	2	0	3	0
	체코항공	104	17	16.35	0	5	1	11	0
	터어키항공	290	15	5.17	1	14	0	0	0
	프랑스항공	184	24	13.04	0	18	2	3	1
핀란드항공	184	9	4.89	0	6	0	2	1	
대양주	하와이안에어	132	3	2.27	0	0	2	1	0
기타	에미레이트항공사	206	1	0.49	0	0	1	0	0
	에티하드항공	184	2	1.09	0	1	1	0	0
	카타르항공	211	4	1.90	0	3	1	0	0
합계	33,774	2,839	8.41	214	1,808	97	551	169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지연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기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3) 노선별 지연 현황

① 일본노선 지연 현황

- ❖ 전반적으로 일본노선의 지연율은 2015년 3분기 대비 2016년 3분기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7년 3분기에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적항공사의 지연율과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이 약 0.21%p로 큰 차이는 없으나, 외국적항공사가 낮게 나타남.
- ▶ 일본 항공사의 전반적인 지연율은 낮은 편이나, 에어피치의 2017년 3분기 일본노선 지연율이 약 4.95%로 일본노선 중 다른 외국적 항공사에 비하여 높음.
- ▶ 국적항공사의 경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의 2017년 3분기 일본노선 지연율이 각각 약 4.48%, 3.95%로 일본노선 평균 지연율에 비해 높은 편임.

〈표 2-15〉 일본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90	1.79	1.95	1.05	0.16
	아시아나항공	1.46	2.22	3.47	2.01	1.25
	에어부산	1.51	2.21	0.74	-0.77	-1.47
	에어서울	-	-	2.70	-	-
	이스타항공	2.31	11.36	4.48	2.17	-6.88
	제주항공	1.26	2.68	2.70	1.44	0.02
	진에어	0.88	2.06	2.11	1.23	0.05
	티웨이항공	1.81	5.13	3.95	2.14	-1.18
	합계	1.27	2.95	2.67	1.40	-0.28
외국적 항공사	에어피치	3.56	6.40	4.95	1.39	-1.45
	유나이티드	-	-	-	-	-
	일본항공	0.82	1.54	0.63	-0.19	-0.91
	전일본항공	0.91	1.27	0.36	-0.55	-0.91
	합계	1.68	3.61	2.46	0.78	-1.15
노선 합계	1.33	3.03	2.64	1.31	-0.39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② 미주노선 지연 현황

- ❖ 전반적으로 2017년 3분기 미주노선의 지연율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0.62%p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 3분기 대비 3.36%p 증가하여 7.26% 지연율이 나타남.
- ❖ 미주노선의 국적항공사 지연율은 약 8.07%로 외국적항공사의 약 5.55%보다 약 2.5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국적항공사에서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약 14.37%로 미주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였으며, 외국적항공사에서서는 에어캐나다가 약 12.26%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함.

〈표 2-16〉 미주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1.76	6.32	5.56	3.80	-0.76
	아시아나항공	7.12	12.09	14.37	7.25	2.28
	합계	3.36	8.03	8.07	4.71	0.04
외국적 항공사	델타항공	6.56	4.40	4.60	-1.96	0.20
	싱가폴항공	2.17	3.26	1.09	-1.08	-2.17
	아메리칸항공	7.65	16.39	1.65	-6.00	-14.74
	아에로멕시코	-	-	4.95	-	-
	에어캐나다	7.07	11.68	12.26	5.19	0.58
	유나이티드	3.84	4.14	4.62	0.78	0.48
	캐세이퍼시픽	-	-	0.00	-	-
	태국항공	3.88	-	-	-	-
	합계	5.27	7.53	5.55	0.28	-1.98
노선 합계		3.90	7.88	7.26	3.36	-0.62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③ 아시아노선⁵⁾ 지연 현황

- ❖ 전반적으로 아시아노선의 지연율은 2015년 3분기 대비 약 3.17%p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0.21%p 증가하여 약 8.03%로 나타남.
- ▶ 또한 국적항공사 지연율은 약 8.08%로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 약 7.94% 보다 미세하게 높음.
- ▶ 아시아노선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 2017년 3분기 지연율은 스카이웍스아시아(약 37.50%)가 가장 높으며, 에어아시아엑스(약 22.46%), 몽골(약 18.64%), 비엳젯항공(약 14.32%) 순으로 나타남.
- ▶ 아시아노선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 중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약 12.70%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이며, 다음으로 이스타항공이 약 10.30%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국적항공사는 에어서울로 약 3.36%로 나타남.

<표 2-17> 아시아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2.42	6.53	6.58	4.16	0.05
	아시아나항공	5.42	10.22	12.70	7.28	2.48
	에어부산	2.74	2.79	1.11	-1.63	-1.68
	에어서울	-	-	3.36	-	-
	이스타항공	4.12	10.48	10.30	6.18	-0.18
	제주항공	3.80	9.81	8.07	4.27	-1.74
	진에어	1.82	6.23	7.63	5.81	1.40
	티웨이항공	3.29	12.31	8.01	4.72	-4.30
	합계	3.53	8.08	8.08	4.55	0.00
외국적 항공사	드레곤에어	2.80	4.91	3.47	0.67	-1.44
	라오항공	3.08	2.38	2.36	-0.72	-0.02
	로얄브루나이항공	-	-	0.00	-	-
	만달린항공	30.00	5.20	3.70	-26.30	-1.50
	말레이시아	3.80	2.17	11.41	7.61	9.24
	몽골	10.18	6.87	18.64	8.46	11.77
	베트남	3.81	6.26	3.81	0.00	-2.45
	부흥항공	15.00	17.92	-	-	-

5) 아시아노선이란 운항횟수가 높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아시아 지역 노선을 말함.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브이에어	0.00	2.38	-	-	-
비엣젯항공	13.29	3.80	14.32	1.03	10.52
세부퍼시픽	5.76	12.52	8.01	2.25	-4.51
스카이웍스아시아	5.21	16.67	37.50	32.29	20.83
스쿠트항공	6.25	1.25	0.00	-6.25	-1.25
싱가폴항공	2.60	3.53	1.22	-1.38	-2.31
에바	7.89	4.98	1.99	-5.90	-2.99
에어마카오항공	1.44	4.08	9.28	7.84	5.20
에어아시아 엑스	4.04	5.27	22.46	18.42	17.19
에어아시아필리핀	20.81	13.47	13.20	-7.61	-0.27
에어필리핀	-	-	2.72	-	-
유니항공	-	1.28	1.28	-	0.00
인도네시아	4.27	3.80	4.39	0.12	0.59
인도항공	18.63	21.70	12.63	-6.00	-9.07
중화항공	6.70	7.53	4.96	-1.74	-2.57
캄보디아 앙코르항공	-	19.23	-	-	-
캐세이퍼시픽	10.53	7.26	12.68	2.15	5.42
타이거에어	-	4.44	1.32	-	-3.12
타이거항공	-	-	6.90	-	-
타이에어아시아 엑스	2.72	5.43	2.45	-0.27	-2.98
태국항공	3.94	8.78	9.83	5.89	1.05
페시픽항공	-	-	8.33	-	-
필리핀항공	6.14	13.99	5.44	-0.70	-8.55
홍콩익스프레스	5.32	3.28	10.15	4.83	6.87
홍콩중부항공	-	-	10.68	-	-
합계	6.88	7.41	7.94	1.06	0.53
노선 합계	4.86	7.82	8.03	3.17	0.21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④ 중국노선 지연 현황

❖ 2017년 3분기에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지연율이 약 1.50%p 증가하였으며, 국적 항공사는 전년 동기간 약 6.55%에서 약 8.14%로 약 1.59%p 증가하였고, 외국적 항공사의 지연율은 전년 동기간 약 9.67%에서 약 11.60%로 약 1.93%p 증가하였습니다.

- ▶ 중국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2017년 3분기 지연율은 심천항공(약 28.10%), 중국하문항공(약 19.44%), 사천항공(약 19.23%)이 높게 나타남.
- ▶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은 각각 약 14.09%, 약 8.13%, 약 7.26%의 지연율을 나타냄.
- ▶ 국적항공사 중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약 13.68%, 아시아나항공이 약 10.67%로 높은 지연율을 나타냄.
- ▶ 국적항공사 중에서는 이스타항공은 지연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7.35%p 감소하여 많은 개선 효과를 보여줌.

<표 2-18> 중국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3.73	5.20	6.48	2.75	1.28
	아시아나항공	5.97	7.39	10.67	4.70	3.28
	에어부산	2.13	3.59	3.22	1.09	-0.37
	이스타항공	6.10	10.43	3.08	-3.02	-7.35
	제주항공	3.17	5.07	6.21	3.04	1.14
	진에어	0.85	9.77	3.06	2.21	-6.71
	티웨이항공	0.64	10.37	13.68	13.04	3.31
	합계	4.69	6.55	8.14	3.45	1.59
외국적 항공사	길상항공 (준야오)	1.35	3.13	-	-	-
	럭키항공	0.00	3.13	-	-	-
	사천항공	15.74	17.65	19.23	3.49	1.58
	산둥항공	4.24	5.38	13.00	8.76	7.62
	심천항공	18.02	18.50	28.10	10.08	9.60
	오케이항공	11.11	4.62	-	-	-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중국국제항공	4.95	8.50	8.13	3.18	-0.37
중국남방항공	6.81	6.46	7.26	0.45	0.80
중국동방항공	16.34	14.70	14.09	-2.25	-0.61
중국상하이항공	16.51	15.25	15.18	-1.33	-0.07
중국천진항공	6.25	8.05	9.78	3.53	1.73
중국춘추항공	5.49	4.36	14.22	8.73	9.86
중국캐피탈항공	12.00	2.94	-	-	-
중국하문항공	22.29	13.74	19.44	-2.85	5.70
하이난항공	-	28.85	-	-	-
홍콩익스프레스	0.00	-	-	-	-
합계	10.22	9.67	11.60	1.38	1.93
노선 합계	7.37	8.24	9.74	2.37	1.50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⑤ 유럽노선 지연 현황

- ❖ 전반적으로 유럽노선의 지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대비 2017년 3분기 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이 약 6.64%p 증가하여 약 12.62%로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이 약 7.51%인 반면 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은 약 17.24%로 약 9.73%p 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이 높게 나타남.
 - ▶ 2017년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로혼잡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74건에서 284건, 23건에서 78건으로 증가하며 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을 높임.
 - ▶ 대한항공은 전년 동기간 대비 지연율이 약 11.10%p 증가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약 7.85%p 증가함.
- ❖ 외국적항공사 중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로는 알리탈리아(약 24.36%), 아에로플로트항공(약 17.93%), 체코항공(약 16.35%) 순으로 나타남.
 - ▶ 알리탈리아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7.76% 지연율이 증가함.

〈표 2-19〉 유럽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3.52	6.30	17.41	13.89	11.11
	아시아나항공	6.56	9.12	16.97	10.41	7.85
	제주항공	-	-	0.00	-	-
	합계	4.67	7.29	17.24	12.57	9.95
외국적 항공사	네덜란드	8.86	2.42	1.20	-7.66	-1.22
	롯데항공	-	-	9.23	-	-
	루프트한자항공	7.40	7.72	12.32	4.92	4.60
	사할린스키항공	1.62	1.38	0.85	-0.77	-0.53
	시베리아항공	1.92	6.41	6.25	4.33	-0.16
	아스타나항공	10.58	1.92	13.64	3.06	11.72
	아에로플로트항공	7.61	5.43	17.93	10.32	12.50
	알리탈리아	7.69	6.60	24.36	16.67	17.76
	야쿠티아항공	-	3.33	0.00	-	-3.33
	영국항공	8.70	5.98	5.43	-3.27	-0.55
	우즈베키스탄	7.14	4.29	5.68	-1.46	1.39
	체코항공	0.95	9.80	16.35	15.40	6.55
	터키항공	4.86	3.79	5.17	0.31	1.38
	프랑스항공	1.63	7.14	13.04	11.41	5.90
	핀란드항공	1.63	2.22	4.89	3.26	2.67
	합계	4.72	4.48	7.51	2.79	3.03
	노선 합계	4.69	5.98	12.62	7.93	6.64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럽에 출발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로, 이 시간대에는 유럽 노선을 이용 시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중국 노선의 혼잡시간대와 맞물려 지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 국적항공사와 유사한 시간대에 출발하는 루프트한자항공, 아스타나항공, 아에로플로트항공, 알리탈리아, 체코항공, 프랑스항공도 두자리 대의 높은 지연율을 타냄.
 - ▶ 반면, 오전시간에 출발하는 사할린스키항공, 영국항공, 핀란드항공과 밤시간에 출발하는 네덜란드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 터키항공은 전체 평균 지연율

보다 낮은 지연율을 나타냄.

⑥ 대양주노선 지연 현황

- ❖ 대양주노선의 지연율은 약 3.37%로 전체 노선의 지연율보다 낮게 나타남.
 - ▶ 대양주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2017년 3분기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약 6.43%로 나타났으며, 외국적항공사는 하와이안에어가 단일 취항 중으로 약 2.27%의 지연율을 보임.

〈표 2-20〉 대양주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2.10	2.76	3.00	0.90	0.24
	아시아나항공	5.93	5.38	6.43	0.50	1.05
	에어부산	1.27	0.00	0.00	-1.27	0.00
	에어서울	-	-	0.00	-	-
	제주항공	4.09	1.27	1.80	-2.29	0.53
	진에어	0.45	3.11	4.81	4.36	1.70
	티웨이항공	7.69	7.12	3.81	-3.88	-3.31
	합계	2.87	3.17	3.42	0.55	0.25
외국적 항공사	유나이티드	1.68	-	-	-	-
	하와이안에어	3.85	3.03	2.27	-1.58	-0.76
	합계	2.59	3.03	2.27	-0.32	-0.76
전체노선 합계		2.84	3.16	3.37	0.53	0.21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⑦ 기타노선⁶⁾ 지연 현황

- ❖ 2017년 3분기에는 아프리카 정기노선은 없었으며, 중동노선만 존재함.
- ❖ 중동 노선의 지연율은 2017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약 2.46%p 증가하였으며,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취항 중으로 지연율 약 21.76%를 나타냈으며, 이는 동기간 대비 약 12.2%p 증가한 수치임.
 - ▶ 대한항공은 전년 동분기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19건에서 2017년 3분기 49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연율이 급격히 증가함.
 - ▶ 3개의 중동항공사의 경우 지연율이 2% 미만으로 나타남.

<표 2-21> 기타노선 지연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4.29	9.55	21.76	17.47	12.21
	합계	4.29	9.55	21.76	17.47	12.21
외국적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사	1.09	1.09	0.49	-0.60	-0.60
	에티하드항공	2.17	2.72	1.09	-1.08	-1.63
	카타르항공	0.54	2.72	1.90	1.36	-0.82
	합계	1.27	2.17	1.16	-0.11	-1.01
노선 합계		2.34	4.96	7.42	5.08	2.46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6) 기타노선이란 중동노선과 아프리카노선을 말하며, 중동노선에는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이 운항 중이며, 2017년 3분기에 아프리카노선의 운항사는 없음.

다. 결항 현황

1) 국적항공사 결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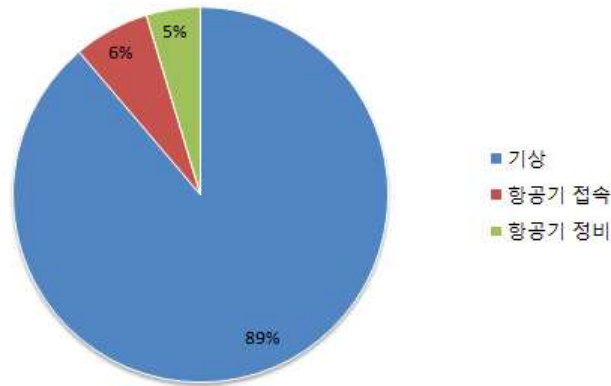
- ❖ 2017년 3분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은 총 117건으로 전체 운항계획의 약 0.17%를 차지하고 있음.
 - ▶ 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으로 결항횟수 16건, 약 0.40%의 결항률을 나타냈으며, 12건의 기상에 의한 결항과 2건의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결항, 2건의 정비로 인한 결항이 나타남.
 - ▶ 결항횟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총 33건의 결항편이 발생한 대한항공으로 30건의 기상에 의한 결항과 3건의 기타사유로 인한 결항이 발생함.
- ❖ 2017년 3분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총 95건인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며, 전체 결항 편수 중 약 81.20%에 달함.
 - ▶ 그 외에도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결항은 7건이며, 항공기 정비로 인한 결항도 5건 발생, 기타 사유로 인한 결항이 10건 발생하였음.

〈표 2-22〉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 계획	결항 횟수	결항률	결항사유			
				기상	접속	정비	기타
대한항공	24,229	33	0.14	30	-	-	3
아시아나항공	16,927	29	0.17	22	3	-	4
에어부산	4,916	10	0.20	7	2	1	-
에어서울	1,344	2	0.15	-	-	2	-
이스타항공	4,035	16	0.40	12	2	2	-
제주항공	7,888	16	0.20	16	-	-	-
진에어	6,154	8	0.13	8	-	-	-
티웨이항공	5,253	3	0.06	-	-	-	3
합계	70,746	117	0.17	95	7	5	10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결항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지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20〉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사유

❖ 최근 3년간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는 약 0.30%였으며, 2016년 3분기 약 0.09%, 2017년 3분기 약 0.17%로, 2015년 대비 약 0.13%p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약 0.07%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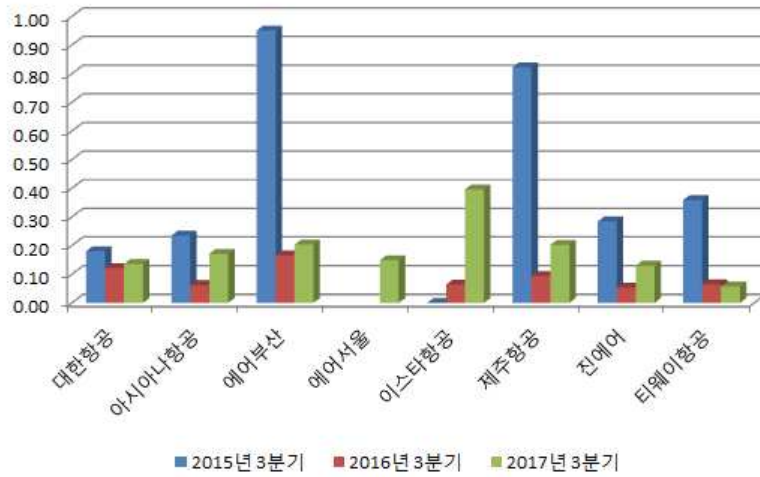
▶ 국적항공사들의 경우, 3분기 기상악화로 인하여 결항이 크게 증가함.

〈표 2-23〉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률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대한항공	0.18	0.12	0.14	-0.04	0.02
아시아나항공	0.23	0.06	0.17	-0.06	0.11
에어부산	0.95	0.17	0.20	-0.75	0.03
에어서울	-	-	0.15	-	-
이스타항공	0.00	0.06	0.40	0.40	0.34
제주항공	0.82	0.09	0.20	-0.62	0.11
진에어	0.28	0.05	0.13	-0.15	0.08
티웨이항공	0.36	0.06	0.06	-0.30	0.00
합계	0.30	0.09	0.17	-0.13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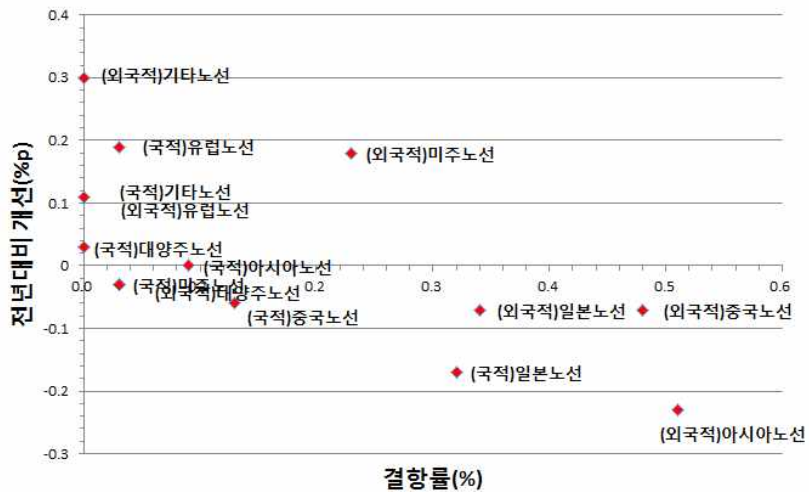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그림 2-21>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률 추이

2) 외국적항공사 결항 현황

- ❖ 2017년 3분기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42%로 약 0.17% 결항률을 보인 국적항공사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2-22> 노선별 국제선 결항률 개선 현황

<표 2-24> 노선별 국제선 결항률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일본노선	0.47	0.15	0.32	-0.15	0.17
	미주노선	0.03	0.00	0.03	0.00	0.03
	아시아노선	0.31	0.09	0.09	-0.22	0.00
	중국노선	0.24	0.07	0.13	-0.11	0.06
	유럽노선	0.24	0.22	0.03	-0.21	-0.19
	대양주노선	0.41	0.00	0.03	-0.38	0.03
	기타노선	0.00	0.11	0.00	0.00	-0.11
외국적 항공사	일본노선	0.33	0.27	0.34	0.01	0.07
	미주노선	0.36	0.41	0.23	-0.13	-0.18
	아시아노선	0.4	0.28	0.51	0.11	0.23
	중국노선	0.61	0.4	0.48	-0.13	0.08
	유럽노선	0.00	0.03	0.00	0.00	-0.03
	대양주노선	0.31	0.00	0.03	-0.28	0.03
	기타노선	0.00	0.3	0.00	0.00	-0.30
합계	0.36	0.18	0.25	-0.11	0.07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 노선별 지연율은 아시아노선의 외국적항공사 결항률이 약 0.5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국노선의 외국적항공사 결항률 약 0.48%, 일본노선의 외국적항공사 결항률 약 0.34%, 일본노선의 국적항공사 결항률 약 0.32% 순으로 나타남.
 - ▶ 기상악화에 의한 영향으로 아시아노선의 외국적항공사 결항은 전년 동기간 대비 0.23%p 증가하였으며, 일본노선 중 국적항공사 결항은 전년 동기간 대비 0.17%p 증가함.
- ❖ 외국적항공사 중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국적항공사로, 이들의 결항률은 각각 약 0.25%, 약 0.61%로 나타남.
- ❖ 일본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피치로 결항률은 약 0.62%이며, 미주노선에 경우는 델타항공으로 결항편이 없었으며, 아시아노선에서는 가장 운항횟수가 많은 항공사는 베트남 항공으로 결항률 약 0.16%이며, 중국노선은 중국동방항공으로 약 0.25%, 유럽노선은 사할린스키항공으로 결항

이 없었으며, 대양주노선과 기타노선(중동지역)은 결항이 없었음.

❖ 인도항공(약 8.65%), 중국상하이항공(약 1.82%), 홍콩익스프레스항공(약 1.68%), 중국춘추항공(약 1.15%), 캐세이퍼시픽(약 1.14%), 아메리칸항공(약 1.09%), 중화항공(약 1.00%)은 국내 취항중인 외국적항공사 중 결항률이 1%이상으로 나타났음.

❖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은 <표 2-25>와 같음.

<표 2-25> 외국적항공사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 계획	결항 횟수	결항률	결항사유				
				기상	접속	정비	기타	
일본	에어피치	1,282	8	0.62	8	0	0	0
	일본항공	1,104	1	0.09	0	0	1	0
	전일본항공	551	1	0.18	0	0	0	1
미주	델타항공	544	0	0.00	0	0	0	0
	싱가폴항공	184	0	0.00	0	0	0	0
	아메리칸항공	184	2	1.09	0	0	2	0
	아에로멕시코	102	1	0.98	0	0	1	0
	에어캐나다	367	0	0.00	0	0	0	0
	유나이티드	369	1	0.27	0	0	1	0
	캐세이퍼시픽	1	0	0.00	0	0	0	0
	드레곤에어	290	2	0.69	2	0	0	0
아시아	라오항공	212	0	0.00	0	0	0	0
	로얄 브루나이 항공	16	0	0.00	0	0	0	0
	만달린항공	54	0	0.00	0	0	0	0
	말레이시아	184	0	0.00	0	0	0	0
	몽골	220	0	0.00	0	0	0	0
	베트남	1,262	2	0.16	0	0	2	0
	비엣젯항공	894	0	0.00	0	0	0	0
	세부퍼시픽	624	0	0.00	0	0	0	0
	스카이웍스아시아	16	0	0.00	0	0	0	0
	스쿠트항공	20	0	0.00	0	0	0	0
	싱가폴항공	736	0	0.00	0	0	0	0
	에바	812	7	0.86	5	0	0	2
	에어마카오항공	336	2	0.60	2	0	0	0
	에어아시아 엑스	472	0	0.00	0	0	0	0
	에어아시아필리핀	841	0	0.00	0	0	0	0
	에어필리핀	184	0	0.00	0	0	0	0
	유니항공	78	0	0.00	0	0	0	0
	인도네시아	342	0	0.00	0	0	0	0

구분	운항 계획	결항 횟수	결항률	결항사유				
				기상	접속	정비	기타	
중국	인도항공	104	9	8.65	6	0	1	2
	중화항공	998	10	1.00	10	0	0	0
	캐세이퍼시픽	1,053	12	1.14	10	2	0	0
	타이거에어	307	3	0.98	2	1	0	0
	타이거항공	58	0	0.00	0	0	0	0
	타이에어아시아엑스	368	0	0.00	0	0	0	0
	태국항공	865	0	0.00	0	0	0	0
	페시픽항공	12	0	0.00	0	0	0	0
	필리핀항공	1,255	4	0.32	2	0	2	0
	홍콩익스프레스	1,072	18	1.68	3	15	0	0
	홍콩중부항공	208	2	0.96	2	0	0	0
중국	사천항공	78	0	0.00	0	0	0	0
	산둥항공	1,348	2	0.15	1	1	0	0
	심천항공	210	0	0.00	0	0	0	0
	중국국제항공	1,494	5	0.33	3	2	0	0
	중국남방항공	3,256	20	0.61	6	12	0	2
	중국동방항공	3,558	9	0.25	4	0	5	0
	중국상하이항공	604	11	1.82	7	2	1	1
	중국천진항공	184	0	0.00	0	0	0	0
	중국춘추항공	697	8	1.15	1	6	1	0
	중국하문항공	108	0	0.00	0	0	0	0
유럽	네덜란드	166	0	0.00	0	0	0	0
	롯데항공	130	0	0.00	0	0	0	0
	루프트한자항공	342	1	0.29	0	0	1	0
	사할린스키항공	708	0	0.00	0	0	0	0
	시베리아항공	288	0	0.00	0	0	0	0
	아스타나항공	132	0	0.00	0	0	0	0
	아에로플로트항공	184	0	0.00	0	0	0	0
	알리탈리아	78	0	0.00	0	0	0	0
	야쿠티아항공	2	0	0.00	0	0	0	0
	영국항공	184	0	0.00	0	0	0	0
	우즈베키스탄	88	0	0.00	0	0	0	0
	체코항공	104	0	0.00	0	0	0	0
	터어키항공	290	0	0.00	0	0	0	0
	프랑스항공	184	0	0.00	0	0	0	0
	핀란드항공	184	0	0.00	0	0	0	0
대양주	하와이안에어	132	0	0.00	0	0	0	0
	에미레이트항공사	206	0	0.00	0	0	0	0
기타	에티하드항공	184	0	0.00	0	0	0	0
	카타르항공	211	0	0.00	0	0	0	0
합계		33,915	141	0.42	74	41	18	8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결항사유 중 기타란 공항 사정, 기상 조업, 여객 처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3) 노선별 결항 현황

① 일본노선 결항 현황

❖ 2017년 3분기 일본노선의 결항률은 전년대비 약 0.15%p 증가하여 전체 평균 약 0.32%를 나타내었으며, 국적항공사는 평균 결항률 약 0.32%이며, 외국적항공사 결항률은 약 0.34%로 나타남.

- ▶ 해당 노선에서는 국적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이 약 0.46%로 가장 높은 결항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제주항공의 결항률이 약 0.45%로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 중 에어피치가 결항률 약 0.62%로 가장 높은 결항률을 보임.

〈표 2-26〉 일본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33	0.37	0.36	0.03	-0.01
	아시아나항공	0.46	0.09	0.46	0.00	0.37
	에어부산	0.83	0.06	0.26	-0.57	0.20
	에어서울	-	-	0.00	-	-
	이스타항공	0.00	0.00	0.32	0.32	0.32
	제주항공	0.87	0.07	0.45	-0.42	0.38
	진에어	0.39	0.00	0.30	-0.09	0.30
	티웨이항공	0.36	0.07	0.03	-0.33	-0.04
	합계	0.47	0.15	0.32	-0.15	0.17
외국적 항공사	에어피치	0.68	0.47	0.62	-0.06	0.15
	유나이티드	-	100.00	-	-	-
	일본항공	0.27	0.00	0.09	-0.18	0.09
	전일본항공	0.00	0.18	0.18	0.18	0.00
	합계	0.33	0.27	0.34	0.01	0.07
노선 합계	0.45	0.16	0.32	-0.13	0.16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② 미주노선 결항 현황

- ❖ 미주노선 결항률은 약 0.09%로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 약 0.23%에 비하여 국적항공사의 결항률은 약 0.03%로 낮게 나타남.
- ❖ 미주노선을 취항중인 외국적항공사 중 아메리칸항공은 약 1.09%로 가장 높은 결항률을 보였으며, 아에로멕시코의 경우 약 0.98%로 결항률이 나타남.

<표 2-27> 미주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00	0.00	0.04	0.04	0.04
	아시아나항공	0.10	0.00	0.00	-0.10	0.00
	합계	0.03	0.00	0.03	0.00	0.03
외국적 항공사	델타항공	0.54	0.55	0.00	-0.54	-0.55
	싱가폴항공	0.00	0.00	0.00	0.00	0.00
	아메리칸항공	0.00	0.54	1.09	1.09	0.55
	아에로멕시코	-	-	0.98	-	-
	에어캐나다	0.00	0.00	0.00	0.00	0.00
	유나이티드	0.82	0.82	0.27	-0.55	-0.55
	캐세이퍼시픽	-	-	0.00	-	-
	태국항공	0.00	-	-	-	-
	합계	0.36	0.41	0.23	-0.13	-0.18
노선 합계		0.12	0.12	0.09	-0.03	-0.03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③ 아시아노선 결항 현황

- ❖ 2017년 3분기 아시아노선의 결항률은 전년대비 약 0.08%p 증가하여 전체 평균 약 0.25%를 나타내었으며, 국적항공사의 결항률 0.09%가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 0.51%보다 낮게 나타남.
- ▶ 아시아노선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 중 해당 노선에서 2017년 3분기 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인도항공으로 약 8.65%로 나타남.
- ▶ 인도항공의 경우 기상에 의한 결항은 6건, 정비에 의한 결항 1건, 기타 사유 2건으로 타 항공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결항률이 나타남.
- ▶ 국적항공사 중 이스타항공의 결항률이 약 0.48%로 가장 높으며, 기상에 의한 결항 6건, 항공기 접속에 의한 결항 2건, 정비에 의한 결항 2건으로 나타남.

〈표 2-28〉 아시아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16	0.08	0.06	-0.10	-0.02
	아시아나항공	0.14	0.04	0.02	-0.12	-0.02
	에어부산	1.41	0.33	0.12	-1.29	-0.21
	에어서울	-	-	0.19	-	-
	이스타항공	0.00	0.16	0.48	0.48	0.32
	제주항공	0.80	0.12	0.00	-0.80	-0.12
	진에어	0.09	0.04	0.00	-0.09	-0.04
	티웨이항공	0.50	0.12	0.11	-0.39	-0.01
	합계	0.31	0.09	0.09	-0.22	0.00
외국적 항공사	드레곤에어	0.79	0.35	0.69	-0.10	0.34
	라오항공	0.00	0.00	0.00	0.00	0.00
	로얄브루나이 항공	-	-	0.00	-	-
	만달린항공	0.00	0.98	0.00	0.00	-0.98
	말레이지아	0.00	0.00	0.00	0.00	0.00
	몽골	0.00	0.00	0.00	0.00	0.00
	베트남	0.08	0.08	0.16	0.08	0.08
	부흥항공	0.00	0.00	-	-	-
	브이에어	22.22	3.08	-	-	-
비엳젯항공	0.00	0.00	0.00	0.00	0.00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세부퍼시픽	0.29	0.00	0.00	-0.29	0.00
스카이웍스아시아	2.04	0.00	0.00	-2.04	0.00
스쿠트항공	0.00	0.00	0.00	0.00	0.00
싱가폴항공	0.00	0.00	0.00	0.00	0.00
에바	0.00	0.86	0.86	0.86	0.00
에어마카오항공	0.00	0.00	0.60	0.60	0.60
에어아시아 엑스	0.89	0.00	0.00	-0.89	0.00
에어아시아필리핀	0.24	0.12	0.00	-0.24	-0.12
에어필리핀	-	-	0.00	-	-
유니항공	-	0.00	0.00	-	0.00
인도네시아	0.61	0.00	0.00	-0.61	0.00
인도항공	0.00	0.00	8.65	8.65	8.65
중화항공	3.07	0.32	1.00	-2.07	0.68
캄보디아앙코르 항공	-	0.00	-	-	-
캐세이퍼시픽	0.00	0.46	1.14	1.14	0.68
타이거에어	-	1.10	0.98	-	-0.12
타이거항공	-	-	0.00	-	-
타이에어아시아 엑스	0.00	0.00	0.00	0.00	0.00
태국항공	0.21	0.23	0.00	-0.21	-0.23
페시픽항공	-	-	0.00	-	-
필리핀항공	0.38	0.26	0.32	-0.06	0.06
홍콩익스프레스	0.00	0.54	1.68	1.68	1.14
홍콩중부항공	-	-	0.96	-	-
합계	0.40	0.28	0.51	0.11	0.23
노선 합계	0.35	0.17	0.25	-0.10	0.08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④ 중국노선 결항 현황

- ❖ 2017년 3분기 중국노선의 결항률은 전년대비 약 0.04%p 증가하여 전체 평균 약 0.29%를 나타내었으며,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약 0.48%)보다 국적항공사의 결항률(약 0.13%)이 약 0.35%p 높게 나타남.
 - ▶ 중국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해당 노선에서 2017년 3분기 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중국상하이항공으로 약 1.82%로 나타났으며, 결항 사유로는 기상에 의한 결항 7건, 항공기접속에 의한 결항 7건, 정비에 의한 결항 1건, 기타 사유로 인하여 1건 발생함.
 - ▶ 중국춘추항공에 경우 결항률이 약 1.15%이며, 이 중 항공기 접속에 의한 결항이 약 75%를 차지함.
 - ▶ 중국남방항공의 결항률은 0.61%인데, 이 중 항공기 접속에 의한 결항이 약 6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9〉 중국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23	0.03	0.13	-0.10	0.10
	아시아나항공	0.23	0.08	0.16	-0.07	0.08
	에어부산	0.24	0.21	0.21	-0.03	0.00
	이스타항공	0.00	0.00	0.00	0.00	0.00
	제주항공	0.45	0.16	0.00	-0.45	-0.16
	진에어	1.68	0.42	0.00	-1.68	-0.42
	티웨이항공	0.00	0.00	0.00	0.00	0.00
	합계	0.24	0.07	0.13	-0.11	0.06
외국적 항공사	길상항공(준야오)	0.00	0.00	-	-	-
	럭키항공	0.00	0.00	-	-	-
	사천항공	0.00	0.00	0.00	0.00	0.00
	산둥항공	0.44	0.88	0.15	-0.29	-0.73
	심천항공	0.00	0.00	0.00	0.00	0.00
	오케이항공	0.00	1.14	-	-	-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중국국제항공	0.17	0.57	0.33	0.16	-0.24
중국남방항공	0.36	0.13	0.61	0.25	0.48
중국동방항공	1.08	0.23	0.25	-0.83	0.02
중국상하이항공	1.36	2.32	1.82	0.46	-0.50
중국천진항공	0.00	0.00	0.00	0.00	0.00
중국춘추항공	0.53	0.26	1.15	0.62	0.89
중국캐피탈항공	0.00	0.00	-	-	-
중국하문항공	1.19	0.87	0.00	-1.19	-0.87
하이난항공	-	0.00	-	-	-
홍콩익스프레스	0.00	-	-	-	-
합계	0.61	0.40	0.48	-0.13	0.08
노선 합계	0.42	0.25	0.29	-0.13	0.04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⑤ 유럽노선 결항 현황

❖ 2017년 3분기 유럽노선의 결항률은 전체 평균 약 0.02%로 낮게 나타남.

▶ 해당 노선에서 루프트한자항공은 정비에 의한 결항 1건이 발생함.

〈표 2-30〉 유럽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00	0.05	0.00	-0.05
	아시아나항공	0.00	0.00	0.00	0.00
	제주항공	-	-	0.00	-
	합계	0.00	0.03	0.00	-0.03
외국적 항공사	네덜란드	0.00	0.00	0.00	0.00
	롯데항공	-	-	0.00	-
	루프트한자항공	0.29	0.30	0.29	0.00
	사할린스키항공	0.89	0.00	0.00	-0.89
	시베리아항공	0.00	0.00	0.00	0.00
	아스타나항공	0.00	0.00	0.00	0.00
	아에로폴로트항 공	0.00	0.00	0.00	0.00
	알리탈리아	0.00	0.00	0.00	0.00
	야쿠티아항공	-	0.00	0.00	-
	영국항공	0.00	0.00	0.00	0.00
	우즈베키스탄	0.00	0.00	0.00	0.00
	체코항공	0.00	0.97	0.00	0.00
	터어키항공	0.00	0.68	0.00	0.00
	프랑스항공	0.00	0.00	0.00	0.00
	핀란드항공	0.00	1.10	0.00	0.00
	합계	0.24	0.22	0.03	-0.21
	전체노선 합계	0.11	0.12	0.02	-0.09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⑥ 대양주노선 결항 현황

❖ 2017년 3분기 대양주노선에서 에어서울의 정비에 의한 결항 1건이 발생함.

<표 2-31> 대양주노선 결항 추이

단위 : %, %p

구분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증감		
				'15년 대비	'16년 대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0.14	0.00	0.00	-0.14	0.00
	아시아나항공	0.00	0.00	0.00	0.00	0.00
	에어부산	1.25	0.00	0.00	-1.25	0.00
	에어서울	-	-	3.23	-	-
	제주항공	1.07	0.00	0.00	-1.07	0.00
	진에어	0.00	0.00	0.00	0.00	0.00
	티웨이항공	0.00	0.00	0.00	0.00	0.00
	합계	0.31	0.00	0.03	-0.28	0.03
외국적 항공사	유나이티드	2.19	-	-	-	-
	하와이안에어	0.00	0.00	0.00	0.00	0.00
	합계	1.28	0.00	0.00	-1.28	0.00
전체노선 합계		0.41	0.00	0.03	-0.38	0.03

주1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⑦ 기타노선 결항 현황

❖ 2017년 3분기 기타노선은 결항된 운항편이 없었음.